

# ISSUE & FOCUS

Newsletter 2017-4(1)

##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경제 분야

조성봉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뒤로하고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오면 경제분야의 엄청난 이슈와 할 일로 숨이 막히게 된다. 선거 때부터 늘 이슈가 되어 왔던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 문제,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문제, 가계부채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부동산 대책, 사교육과 교육비 부담 문제,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산업 및 기술정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등은 긴 할 일 리스트의 겨우 앞의 몇 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당장 급한 발등의 불도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우조선의 회생조치 방향을 논의해야 하고,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여야 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비한 FTA 재협상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는가?

**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먼저 일을 급한 순서대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 급하다는 것은 지금 아니면 문제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같은 것이다. 이 문제도 물론 대통령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고 집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맡겨야 한다. 지금도 산업부와 금융위의 평가와 생각이 다르므로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중요하면서도 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을 먼저 분류해서 이를 처리할 핵심 방향을 정하고 담당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며 이미 업무를 수행해왔던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점령군식 자세를 갖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이 처음부터 새롭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일해 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경험과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한편 이와 함께 다른 의견도 청취하여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해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위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으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이슈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당선인이 고민해야 할 일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틀은 말할 것도 없이 시장원리이며 가격기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원리를 너무도 무시하여 왔다. 시장원리나 가격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거꾸로 문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치논리와 사회적 가치관은 시장원리와 가격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상황논리와 정치논리에 빠져 합리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결국 더 크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공공요금, 등록금, 필수품 가격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아직도 당연시하고 있다. 몇 주 전에 농림축산수산부는 치킨집이 가격 올리는 것을 막는 촌극을 벌인 적 있다. 당장은 작동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크다. 대학 등록금 올리는 것을 교육부가 막았지만 그 결과 우리 대학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수준은 낙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마음 놓고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오랫동안 규제한 덕분에 우리 공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졌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만 커지게 된 것 아닌가? 공공요금도 계속 규제하여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져가고 전력, 가스, 통신,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의 공익산업 생산성은 떨어지고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은 커지고 있다.

시장원리와 가격기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정부규제와 관료 손에 맡기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규제가 편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인가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멋지게 해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다이빙 캐치를 해서 눈부신 활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야수 보다는 발걸음이 빨라 미리 공위치에 가서 자연스럽게 수비하는 내야수가 훨씬 좋은 내야수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인위적인 정책이나 규제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여야 할 일보다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기부터 지나치게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도시·혁신도시·산업단지를 만들며, 4대강을 개발하는 등에 주목하였다. 물론 중요한 SOC를 건설하고 민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경제를 설계하고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을 코치하고 이끌어 나가며 이들에게 싸인까지 주는 야구감독이 될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경제라는 경기장을 잘 관리하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심판역할을 잘 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경기는 선수들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 응원하는 일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경제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일이다.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다. 우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통이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관료가 기업인에게 지시하고, 오라 가라 부르고, 소리 지르며 야단치고, 나아가서 천대하고 백안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관료들은 기업을 이끈 경영인들과 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부가가치의 진정한 원천은 기업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할 때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당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응원하는 일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